

상처 속의 위안, 혹은 사랑의 발견

황학주 시집 「갈 수 없는 쓸쓸함」

황학주의 시를 읽으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문체적 특질이다. 문체적 특질과 상관없이 그의 시에는 빛나는 시구가 많지만 그것을 잘 음미하기 위해서는 그 시구의 전후 문맥을 꼼꼼히 해체, 재구성하는 수고가 따른다.

그의 문체는 불확정성에 겨워 있고, 그의 시는 어렵다. 아니, 까다롭다. 김훈은 그 까다로움에 '길 끊어짐의 서사구조'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는데 '길 끊어짐의 서사구조'란 문체의 부정확, 문맥의 뒤틀어짐, 동시다발적 정황 전개, 비논리적 주장토로를 특질로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길 끊어진 서사' 앞에서 간단없이 망설인다.

한 작가, 시인의 문체적 특질은 그것의 내용과 맞물려 있어야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설명이나 주어가 생략된 듯한 그래서 '결핍의 문체'라고 불려도 좋을 그의 문체적 특질은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배후나 원리에 연유하는 것일까.

그의 많은 시편은 사랑과 밥(끼니)에 빠져 있지만 그것이 충족되는 경우란 찾아볼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사랑처럼 조롱받은 것은 없"(34)으며 "생전에/아무도 내 창자/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14) 악쓰는 그는 "힘을 쓰면 밑구멍이 아픈 가난 속"(41)의 그다.

사랑과 밥이 결핍된 시공간을 대신 채우는 것은 '싸락눈'(18, 58) '눈보라'(20) "무터대고 상경하듯 나타나는 눈송이들"(74) '대설'(83)이다. 그런데 이 눈은 눈물의 은유라는 것에 묘미가 있다. 즉 "그의 개인적 눈물은/내게도 희고 아름다웠다"(37)거나 "늙은 희망의 눈물이 떨어지고"(82)에서처럼 눈물이 '희

황학주의 시를 읽는 일은 쓸쓸하다.

그러나 "한 치 앞을 모르는 상처 속에

사랑이 있으니"라는 그의 인식에서

가까스로 나와 세계간의 통합된

서정적 자이를 보게 된다.

'상처' 속에서야 사랑을 발견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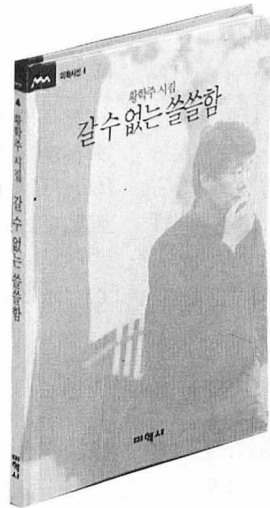
다시 쓸쓸한 일이 되지만,

어쩐지 위안을 준다.

다' '늙다'로 형용될 때 그것은 확실해지며 때문에 "미혼인 동안에도 많은 눈을 맞은/누이여"(70)는 '미혼인 동안에도 많은 눈물을 흘린/누이여'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이제 눈과 눈물은 뒤섞이며 "오랜 눈물이 강통처럼 구르고"(37) 많은 "가시 돋친 눈물"(61)이 흐른다. 「갈 수 없는 쓸쓸함」 속엔 "눈물의 실밥을 뿜"(35)는 '나'가 있다.

황학주에 의해 사랑과 밥이 결핍된 시공간은 그 눈이 '진눈발'(26)인 것으로 보아 그토록 슬픈 눈물을 뿌린 계절은 '봄'이며 "식욕도 후손도 나오지 않는 들판에서/병든 눈물의 모가지들"(30) 늪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들판(농촌)'이 그 결핍의 공간이 된다. 이상하게도 "봄 내내 사랑해 라고 말하면 눈물이 났어"(22) 또는 "내 오한 유난하게 심한 봄날의 사랑"(31) 같은 시구는 내게 춘궁을 떠올린다.

배고플 뿐만 아니라 약속된 신부가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29)는 '대지(들판, 농촌)'를



떠난 시적 자이는 '을중 여관'(20) '쪽 방'(21) '여관방'(22) '여관 숙박부'(47) '산관 일 현장'(49) '여관집'(59) '공사장 부근 여인숙'(67) 등으로 '떠들이 내력'(58)을 시작한다.

배부른 곳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을 듯한 곳엔 반대로 밥이 해결되지 않는다. 시「불화」에서 보듯 "오랫만에/집에서 간 맞은 국을 마신 뒤"에 어머니는 낯설어지고 나는 개인이 되는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는 갈대들이..."라는 시에서 "뻘뻘한 공장에 너 하나는 넣었으니가/부르게 먹는 것 있다"며 그의 등을 타관으로 떠다니 어머니다.

그에게 묻고 싶다. 왜 밥과 사랑은 함께 올 수 없느냐고? 인간은 인간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행복의 조건을 왜 한꺼번에 누릴 수 없는 거냐고?

봄과 대지를 충족과 희망이 아닌 결핍의 시, 공간으로 보는 그의 자이는 통합의 원리가 좌

절된 자이며, 결핍된 세계인식 위에 예의 '결핍의 문체'가 가동한다. 그의 문체적 특질은 이 세계의 비극상과 맞물려져 있으면서 그것의 배후며 원리가 되는 독특한 세계인식에서 울려져 나오는 것이기에, 그의 까다로운 문체에 대한 오해를 면죄시켜 준다.

기왕에 상재된 두 권의 시집에서보다 문체가 꽤 정리되고 언어적으로 순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서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번째 시집에서도 그의 시읽기의 까다로움은 여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았던 것. 사실 정리되고 순화되었다는 지적은 이전의 두 시집이 얼마나 곱고러운 것이었던가를 짐작케 해 줄 뿐 세번째 시집이 앞선 두 시집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결국 특질에서는 같다.

앞서 상재된 두 시집과 이번 시집이 동일한 문체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시적 관심이 결핍된 인간 현실을 향해 즐기차게 천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그것들의 결핍된 존재인가, 라고 물으며 그의 시를 읽는 것은 쓸쓸하다. 그러나 그의 "한 치 앞을 모르는 상처 속에 사랑이 있으니"(46)라는 인식에서 가까스로 나와 세계간의 통합된 서정적 자이를 보게 된다. '상처' 속에서야 사랑을 발견함은 다시 쓸쓸한 일이 되지만, 어쩐지 위안을 준다.

장정일

시인·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45-6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 272-5871
울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 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 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어>이야기—
● 농부<마이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 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까 오시아 역음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3,500원